

페퍼스 최다승 선전에 직관 관중 늘었다



V리그 전반기 결산...페퍼스 2만2558명 관중 동원 1위 흥국생명·디펜딩 챔피언 현대건설 흥행 이끌어

흥국생명과 현대캐피탈이 전반기 2024-2025 V리그 흥행 중심이었다. 14개 구단의 열린 경기가 펼쳐졌던 도드람 2024-2025 V리그가 휴식을 보내고 있다. 한국배구연맹(KOVO)은 후반기 시작에 앞서 이번 시즌 1~3라운드 전반기 결산을 발표했다.

전반기 총 입장 관중은 27만52명으로 지난 시즌 대비 10.5% 증가했다. 여자부 경기에는 14만6797명, 남자부 경기에는 12만 3255명이 입장했다.

'1위' 흥국생명과 현대캐피탈이 전반기 흥행을 이끌었다.

흥국생명은 11월 24일 열린 현대건설과의 홈경기기에 6014명의 관중을 불러들이면서 이번 시즌 남녀부 통틀어 최다 관중수를 기록했다.

'파죽지세' 1위 흥국생명과 '디펜딩 챔피언' 2위 현대건설의 박매지가 펼쳐진 이 경기는 1.88%라는 이번 시즌 전반기 최고 시청률도 장식했다.

이날 흥국생명은 28득점을 쏘아 올린 김연경을 앞세워 현대건설에 3-1승을 거두고 개막 9연승을 달성했다. 양 구단의 선두다툼은 지난 2023-2024 시즌 V리그 전반기 결산에서도 최고 시청률(1.54%)을 차지했다.

흥국생명은 여자부 최다 관중 '톱 5' 경기에도 모두 이름을 올렸다.

GS칼텍스와 2024년 마지막 대결이 벌어진 12월 28일 흥국생명의 안방인 인천 삼산월드체육관에는 4968명이 입장했다.

원정경기에서도 흥국생명의 인기는 이어졌다. 12월 1일 페퍼저축은행 A페퍼스와 원정경기기에 나온 흥국생명은 4000명 만원 관중 앞에서 경기를 치렀고, 이 경기는 여자부 최다 관중 3위를 기록했다.

남자부에서는 '압도적 1위' 현대캐피탈이 흥행의 주역이었다.

현대캐피탈은 전반기 남자부 최다 관중 '톱 5'를 독차지했다.

12월 25일 대한항공과의 경기에 3610명이 입장하면서 최다 관중을 기록했고, 우리카드와의 맞대결에서도 3537명(11월 23일·홈)과 3452명(12월 21일·원정)을 불러들이는 등 성적과 관중 동원에서 모두 1위를 달렸다.

시청률에서도 현대캐피탈의 힘이 돋보였다. 지난달 28일 안산 상록수체육관에서 치러진 현대캐피탈과 OK저축은행과 3라운드 마지막 경기에서는 1.27%, 남자부 최고 시청률이 기록됐다.

이날 현대캐피탈은 34득점의 레오, 20득점의 신평 등의 활약에 힘입어 '최하위' OK저축은행의 끈질긴 추격을 따돌리고 9연승을 행진을 이어갔다.

구단 최다승 기록을 '6'으로 경신한 A 페퍼스는 흥국생명전 매진 경기 포함 올 시즌 11경기에 2만 2558명의 관중을 동원했다. 지난 시즌 전반기 1만 7926명에 비해 25.8% 증가한 수치다.

흥국생명을 중심으로 치열해진 여자부 1위 싸움과 현대캐피탈의 독주 후반기에도 흥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페퍼저축은행 A페퍼스는 지난 14일 도드람 2024-2025 V리그 3라운드 홈 경기에서 GS칼텍스 서울 Kixx를 세트스코어 3-0으로 완파하며 단일 시즌 최다승 타이 기록을 세웠다. 득점에 성공한 후 페퍼스 선수단이 기뻐하고 있다. (KOVO 제공)

프로배구 KB손해보험, 레오나르도 감독 선임...후반기 도약 나선다

9일 한국전력 경기 지휘...아시아쿼터 모하메드로 교체

프로남자배구구단 KB손해보험 스타즈가 5일 새로운 사령탑으로 레오나르도 아폰소 감독을 선임했다. 동시에 아시아쿼터 선수도 교체하면서 조직의 안정 체제 구축과 전력 강화로 후반기 새로운 도약에 나섰다.

브라질 출신의 레오나르도 아폰소 감독은 지난 2010년부터 9년간 브라질 청소년 남자 국가대표팀 감독 등을 맡았고, 이란 국가대표팀 수석 코치와 일본 프로팀 '산토리 선버즈'의 수석 코치를 역임하는 등 지도력을 입증해왔다.

특히 그는 일본 수석 코치로 활동했던 6년간 일본 V리그와 일본 컵대회 등 총 5회 우승을 합작하며 아시아 배구에 대한 이해도를 쌓았다.

앞서 KB손해보험은 2024-2025 V리그 개막전 미켈 리베라 감독의 건강 문제로 마틴 블랑코

(수석코치) 감독대행 체제로 이번 시즌을 준비해왔다.

구단은 이시나에 라미레스 한국남자 대표팀 감독을 신임 감독으로 내정했으나, 지난달 개최된 '제21기 제3차 이사회 및 임시총회' 결과 '전임 감독제'를 존중·유지하기로 결정되면서 이는 무산됐다.

이날 KB손해보험은 아시아쿼터 선수 교체도 발표했다.

KB손해보험은 허벅지 통증에 시달리던 맥스 테이플즈(호주)의 대체 선수로 바레인 국가대표 출신 모하메드 아랍을 영입, 안정적인 공격과 수비 운영을 기대하고 있다.

2012년부터 현재까지 대표팀에서 활약해 온 모하메드는 신장 187cm로 큰 키는 아니지만 뛰어난

점프력과 탄탄한 기본기를 바탕으로 한 공격력이 강점이다.

모하메드는 지난 2022-2023 아시안컵에서 2년 연속 베스트 아웃사이드 히터로 선정됐으며 2022 아시아 챌린지컵에서 바레인의 우승을 이끌었다.

KB손해보험은 9승 9패 승점 26으로 V리그 전반기를 마무리하며 현재 남자부 3위다.

4위 우리카드(9승 9패 승점 24)가 승점 2점 차로 바짝 추격 중인 가운데 오는 7일부터 재개되는 V리그 남자부 상위권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한편 KB손해보험의 지휘봉을 잡은 레오나르도 감독은 오는 9일 오후 7시 수원체육관에서 열리는 한국전력 빅스톰과의 어웨이 경기에서 데뷔전을 치른다. 모하메드는 ITC(국제이적동의서)와 비자 발급 등 행정절차가 완료된 후 입국할 예정이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부활 샷' 정현, 65개월만에 테니스 국제대회 우승

인도네시아 암만 미네랄 대회

정현(1104위·사진)이 국제테니스연맹(ITF) 암만 미네랄 대회(총상금 3만달러) 단식 정상에 올랐다.

정현은 5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단식 결승에서 자일스 핫세(421위·영국)를 2-0(6-1 6-2)으로 물리쳤다.

이로써 정현은 2019년 8월 남자프로테니스(ATP) 정두 인테셔널 챌린저 이후 5년 5개월 만에 국제 대회 단식 우승을 차지했다.

2018년 호주오픈에서 한국 선수 최초로 메이저 대회 단식 4강에 진출했던 정현은 이후 부상이 이어지며 내리막을 걸었다.

세계 랭킹도 2018년 19위까지 올랐다가 지금은 1000위 밖으로 밀린 상태다.

2023년 6월 왼발던 예선 2회전 탈락 이후 부상 때문에 1년 이상 경기에 나오지 못하다가 지난해 9월 일본 퓨처스 대회로 복귀전을 치렀다.

성인 남자 테니스 국제 대회는 크게 4대 메이저

대회와 ATP 투어, ATP 챌린저, ITF 퓨처스 순으로 등급이 나뉜다.

정현이 이번 대회에 우승한 대회는 가장 낮은 등급인 퓨처스에 해당한다.

ITF가 최근 '퓨처스'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대회 총상금 규모에 따라 월드투어 'M25'와 'M15' 등급으로 구분하며 이번 대회는 M25 등급으로 열렸다.

정현은 정규 투어 대회 우승은 없고, 2017년 20세 이하 선수들이 겨루는 넥스트 젠 파이널스 초대 챔피언에 올랐다.

단식 기준으로 챌린저에서 9번 우승했으며 퓨처스에서는 이번 대회까지 5차례 우승을 달성했다.

정현은 이번 대회 8강에서는 톱 시드를 받은 양투안 에스코피에(207위·프랑스)를 2-0(6-2 6-2)으로 완파하는 등 재기 가능성을 부풀렸다.

이번 우승으로 정현은 세계 랭킹 700위 대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조금 더 랭킹 포인트를 쌓으면 주로 100~300위 선수들이 본선에 뛰는 챌린저 무대에도 자력으로 나갈 수 있게 된다. /연합뉴스

'9연속 챔피언' 차준환, 국가대표 선발전 우승

3월 세계선수권대회 출전권 획득

피겨스케이팅 남자 싱글 최강자 차준환(고려대·사진)이 완벽에 가까운 연기로 다음 시즌 국가대표 자격과 오는 3월 미국에서 열리는 세계선수권대회 출전권을 획득했다.

차준환은 5일 경기도 의정부빙상장에서 열린 'KB금융 코리아 피겨스케이팅 챔피언십 2025 전 국민여 중합선수권대회 겸 국가대표 2차 선발전' 남자 싱글 프리스케이팅에서 기술점수(TES) 98.45점, 예술점수(PCS) 92.04점, 총점 190.49점을 얻었다.

전날 쇼트프로그램 점수 90.53점을 합쳐 최종 281.02점을 받은 차준환은 대회 9연속 챔피언에 올라 최강자다운 기량을 뽐냈다.

지난해 11월에 열린 국가대표 1차 선발전에서 1위에 올랐던 차준환은 2차 선발전으로 치러진 이번 대회에서도 우승하며 다음 시즌에도 태극마크를 달게 됐다.

3월 미국 보스턴에서 열리는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세계선수권 출전 티켓도 확보했다.

세계선수권엔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국가별 쿼터가 걸려 있다.

피겨스케이팅 곡 '광인을 위한 발라드'(Balada

para un Loco)에 맞춰 연기를 시작한 차준환은 시작부터 4회전 점프를 두 번 연속 완벽하게 성공했다.

첫 과제인 고난도 쿼드러플 살코에서만 기본 점수 9.70점, 수행점수(GOE) 3.33점을 쟁겼고 이어진 쿼드러플 토투프에서도 GOE 3.26점을 쓸어담았다.

이후 트리플 러즈, 트리플 악셀 역시 깔끔하게 성공했고, 스텝 시퀀스를 레벨 3으로 처리하며 전반부 연기를 마쳤다.

가산점 10%가 붙는 후반부 구간의 첫 과제로 차준환은 트리플 플립-싱글 오일러-트리플 살코 콤비네이션 점프에 성공했고 이어진 트리플 악셀-더블 악셀 시퀀스 점프 역시 군더더기 없이 수행했다.

체인지 풋 콤비네이션 스피ンを 최고 난도인 레벨 4로 처리한 차준환은 트리플 플립을 착지한 뒤 전반부에서 놓쳤던 콤비네이션 점프를 시도했으나 싱글 루프를 처리해 민망한 듯 열게 미소 지었다.

차준환은 코레오 시퀀스와 플라잉 카멜 스피ن(레벨 4), 플라잉 체인지 풋 콤비네이션 스피ن(레벨 4)으로 완성도를 높이며 연기를 마쳤다.

2위는 총점 246.78점을 받은 서민규(경신고)다. 2008년생 서민규가 시니어 대회 출전 연령 제



한(2024년 7월 1일 기준 만 17세 이상)에 걸리면 세계선수권 출전권은 3위 이시형(241.69점·고려대)에게 돌아갔다.

2025-2026시즌 남자 싱글 국가대표로는 1, 2차 선발전 합산 성적을 기준으로 1~5위를 차지한 차준환, 서민규, 이시형, 김현겸(한광고), 이재근(수리고)이 선발됐다.

/연합뉴스

즐거움

문화 산책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GAC 공모전시 환희 : 양홍길 개인전

일시 : 2025-1-15(수) ~ 2025-2-16(일)
10:00 ~ 18:0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
문의 : 062-613-8357

광주시립교향악단 391회 정기연주회
'2025 신년음악회 New Wave'
일시 : 2025-01-15(수) 19:30
장소 : 광주공연마루
문의 : 062-613-8241